

2021 5·18문학상 신인상 동화 부문 심사평

5·18 문학이 품어야 할 세계는 아주 크고 넓다. 어느 동화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에 주제 의식 또한 민주적이면서 건강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5·18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내주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 쓴 작품들이 많았다. 경험을 옮긴 듯이 생생한 현장감을 품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감각적인 문장으로 옮긴 글도 있었지만, 서사를 정돈하지 못하거나 개연성을 간과하여 손쉽게 마무리한 글도 여럿이었다. 또한 주제 전달에만 치우쳐 5·18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 작가 고유의 문학 정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글도 있었다.

그 중 네 작품을 본선에 올렸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 <돼지 할머니>, <한별이가 살던 집>, <완벽한 탐정>이 그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은 신선하고 흥미로웠으나 전개 부분이 불필요하게 길어 아쉬웠고, <돼지 할머니>는 매력적인 인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나 작위적인 결말이 흥미를 떨어뜨렸다.

결국 <한별이가 살던 집>과 <완벽한 탐정>을 두고 심사위원들은 고심했다. 장점이 도드라지는 작품들이었다. <한별이가 살던 집>은 탁월한 문장과 구성으로 작가의 내공이 느껴졌고, 5·18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이 ‘광주’로 대표되는 공간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나무도 땅도 새도 그리고 주인의 고통을 목도했을 집까지도 모두 피해자임을 밝히며 문학적 시야를 확장했다. <완벽한 탐정>은 5·18 문학이 시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이야기와 형식으로 끝없이 창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작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능동적인 캐릭터 또한 큰 매력이었다. 진실을 알리려다 다친 아버지가 내린 미션을 능청스럽게 해낸 어린 탐정들의 캐릭터는 독자들에게 크게 사랑 받을 것임에 확실하다고 여겨졌다.

방향과 결이 상반되다 할 정도로 다른 두 작품이 품은 미덕은 한 치도 양

보할 수 없을 만큼 팽팽했다. 심사위원들은 긴 시간 고민한 끝에 앞으로 5·18 동화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한별이가 살던 집>과 <완벽한 탐정>을 공동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두 작품이 지닌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깊이 다가갈 바란다.

노고가 느껴지는 작품을 보내준 응모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2021년 4월 21일

2021 5·18문학상 신인상 동화 심사위원

이성자, 정란희